

방  
어  
진

# 대왕암

울산광역시 동구 소식지  
2022 겨울호 VOL.163



슬도 등대 일출 사진 김옥경 명예사진기자



슬도 겨울풍경\_ 사진 김옥경 명예사진기자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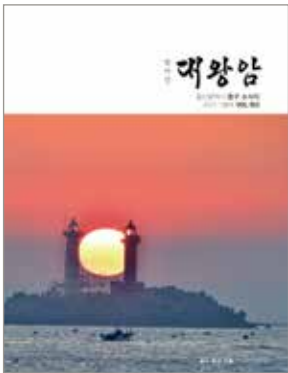
2022 Winter \_ vol.163

## 테마기획

- 04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 교육·청년
- 06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 체육·복지
- 08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 문화·관광
- 10 '더 잘사는 동구'를 위해 - 노동·도시
- 12 찾아가봤습니다 <울산동구 마성만화도서관>
- 14 구정소식
- 16 사진으로 보는 동구
- 20 동구의회 소식

## 우리동네 이야기

- 22 동구,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세빈에 대하여>
- 24 동구의 맛을 찾아서 <누구나 사랑하는 그 맛, 중국집 볶음밥>
- 26 현장탐방 <이웃사랑 빨래터>
- 27 우리동네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미도통닭>
- 28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탁구교실
- 29 동구문화원 예술인 발표대회 / 일산동민 화합한마당
- 30 다문화 동화책 '우리 모두 다 예뻐'
- 31 울산 동구 청소년뉴스 <14년 역사의 청소년 밀알영상제>
- 32 울산동구 인권뉴스
- 33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퇴직준비



발행·편집인 울산 동구청장  
 통권 163호  
 발행처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디자인·인쇄 (주)경일피앤피

## 생활정보

- 34 동구도서관 소식
- 36 동구보건소 소식
- 38 유익한 생활정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종훈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우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福)이 깃들고, 소망하셨던 일을 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긴축에 따른 금리와 물가 급등으로 가계경제와 골목상권이 치명타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 해외수주의 성과가 아직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아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2022년 7월에 출범한 민선 9대가 2년차로 접어드는 2023년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긴밀한 주민소통으로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주민 여러분들이 생활수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 투자하고,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석구석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조선산업의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하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동구청장 **김종훈**

# 더 잘사는 동구

교육과 청년에 투자하는 **미래도시**

## 교육과 청년에 투자하며 미래를 키워가는 울산동구

### 동구-시 교육청 교육혁신지구 사업 추진

동구청은 울산시 교육청과 힘을 모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발전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구청은 시 교육청 지원예산 등 총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3월~12월까지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광장 △ 방학 영어캠프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교육정책 협의) △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 차세대 스마트 융·복합 인재 육성 프로그램(코딩·메타버스 교육)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공연, 미술관람 등) △ ‘무대 뒤가 궁금해’ 공연장 백스테이지 체험 △ 초등학교 창의 진로교실 △ 청소년 마을자치 프로젝트 △ 글로벌 동화로 만나는 다문화 체험 △ 학년 전환기 징검다리 프로그램(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며, 동구청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광장, 방학 영어캠프,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초등학교 창의 진로교실 등을 비롯해 학교와 학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하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권역별 다함께돌봄센터 ‘완성’

전하다함께돌봄센터(동구 녹수길 25, 3층)가 10월 26일 개소됨에 따라 동구지역 각 권역별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각 1곳씩 조성됐다.

전하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동 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 서부동 큰골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 동구지역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이다.

사회복지법인 동울산새마을금고 느티나무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사회복지 전문자격을 갖춘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학습지도와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 체계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하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초등학교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중이다.



###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동구청년센터 새해부터 운영

동구지역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과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동구청년센터가 2023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동구청년센터는 동구 명덕5길 6에 조성된 ‘리얼소통발전소’ 3층에 공유오피스, 사무공간을 갖추고, 청년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과 청년정책 정보의 통합적 제공, 청년대상 취업 및 창업교육 등을 진행할 거점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구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지원사업으로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청년정책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며,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공유 오피스 운영관리 등을, 청년성장 지원사업으로 취업 연계, 프리랜서 컨설팅 지원, 면접지원 등을 추진한다.

2023년에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비대면 면접공간 및 장비 지원 서비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자 육성 및 지원 사업, 온·오프라인 청년 일자리 박람회, 청년 취·창업 활동지원 및 청년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더 잘사는 동구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공존도시**

##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모두가 건강한 울산동구

### 서부회관 공공체육시설 전환...새해 하반기 준공 예정

#### 동부회관도 공공시설 전환 추진

오랫동안 운영 중단된 서부회관이 조만간 공공 체육시설로 전환된다. 동구청은 동구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서부회관을 매입해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동구청은 서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건물 소유주인 현대백화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2023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해 하반기 중 준공할 계획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며,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동부회관에 대해서도 공공체육시설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현대 패밀리동부아파트 내 스포츠동에 위치한 건물 전체 매입작업을 추진중이다. 2023년에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4년에 공사에 착공해 2024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남목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이 될 남목문화체육센터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동구청은 지난 8월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용역에 착수했다. 남목문화체육센터는 서부동 560번지 일원에 연면적 2,98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수영장, 체육관, 생활체육조실 등을 갖추고, 국비 시비 등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 완공될 계획이다.

남목문화체육센터는 남목지역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체육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동부동에 18홀 규모 제2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동구청이 2023년부터 동부동 일대에 제2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여가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2만2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진한다.

현재 동구지역에는 동부동 산153번지에 쇠평파크골프장이 2020년부터 운영중이지만 9홀 규모여서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023년중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 2024년 본격 착공해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서부시민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이 8면으로 확장됐다.

동구청은 기존 4면이었던 테니스장을 8면으로 확충하고, 8면 가운데 5면은 국제대회에서 사용하는 하드 코트로 조성했다. 나머지 3면은 인조잔디 코트로 조성했으며 조명타워 2개도 추가로 설치했다.

동구청은 올해 체육진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 2억7천만원, 시비 3억1500만원 등 총 9억원을 투입해 지난 1996년 개장된 서부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시설을 새롭게 개선했다.



서부시민운동장



히딩크 드림필드

### 히딩크드림필드·대송족구장 정비 공사 완료

동구청은 히딩크드림필드 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총 6억원을 들여 가용 부지를 활용해 기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의 면적을 넓히고 전용규격 족구장 1면과 산책로를 추가 조성했다.

히딩크드림필드는 2002년 월드컵 4강신화의 주역인 거스 히딩크 감독이 장애아동을 위해 기증한 축구장으로 울산에는 2010년 전국 5번째로 들어섰다.

또, 동구청은 동구 화정동 108번지 대송족구장에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700㎡ 규모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12월 완료했다.



대송족구장

# 더 잘사는 동구

또다시 오고픈 문화관광 **풍요 도시**

##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울산동구

### 관광 해양특구 조성 및 리조트 유치

동구청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고늘지구에서 방어진항에 이르는 관광 해양특구 조성 및 관광지 지정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슬도·방어진항·고늘지구 등을 한 권역으로 묶어 관광 해양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및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동구청은 2023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지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관광 해양특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왕암공원 일부 지역 등을 관광지로 지정해 대규모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동구청은 대왕암공원 전체 93만㎡ 중 일정 면적을 공원에서 제척한 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 지정해 숙박시설(리조트),



대왕암\_ 나병성 명예사진기자





관광 휴양·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관광지 지정 신청을 마치고, 오는 2024년까지는 관광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연이 무대가 되는 슬도예술제·대왕암 달빛문화제

동구청은 2011년~2014년에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슬도예술제와 대왕암 달빛문화제를 다시 개최한다.

슬도예술제는 첫 개최 당시 슬도의 바람과 파도소리를 배경으로 야외무대에서 한국무용과 클래식 음악 등을 선보여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문화행사로, 당시 지역 주민들만 알던 슬도를 전국적인 명소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왕암 달빛문화제는 대왕암공원에 보름달이 뜨는 밤에 달빛을 즐기며 대왕암공원 둘레길 걷기와 문화콘서트를



즐기는 체험행사로, ‘밤’이라는 특정 시간대를 관광포인트로 부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동구청은 슬도예술제와 대왕암달빛문화제를 새해부터 부활시켜 연중 각 2회 개최할 계획이다.

### 울산 동구 투어콘텐츠 운영

동구청은 체류형 여행 활성화를 위해 슬도, 대왕암공원, 주전몽돌해변 일원에서 ‘울산동구 투어 콘텐츠’를 운영한다.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동구의 해안산책로를 걸으며 바다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대왕암공원~해파랑길~슬도를 잇는 ‘슬도바다길투어’ 상품을 비롯해 캠핑 관광 활성화 및 체류형 여행을 위해 바다를 바라보며 힐링하는 ‘바다멍’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슬도 해안 산책로\_나병성 명에서진기자

# 더 잘사는 동구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존중도시**

## 일하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울산동구

###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 지속 추진

울산시 동구청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노동복지기금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발생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긴급 생활안정, 복지지원, 교육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동구청이 4년간 매년 25억원씩 1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대기업과 노조, 울산시,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동구지역은 조선업 수주는 증가하는데도 지역 기업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청이 이 기금을 활용해 지역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대기업-중소협력업체 노동자간 상대적인 복지격차를 메움으로써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조선업 노동자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구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

울산시 동구청이 동구청 및 산하기관, 구 위탁 민간시설 등에서 일하는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새해부터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자 등 50여명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동구 도심 풍경\_이쌍식 명예사진기자

##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기좋은 울산동구

### 명덕마을도시재생사업 '리얼소통발전소' 본격 개소 청년센터·마을기록관 운영... 카페에선 '마을 굿즈' 판매도

명덕마을도시재생사업이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라는 타이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중인 가운데 '리얼소통발전소'가 동구 서부동 113-119번지에 문을 열고 새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리얼소통발전소'는 3050세대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이자, 근로자 및 퇴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 공간으로 사용된다. 또 마을 내 커뮤니티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공간으로도 쓰인다.

기존 숙박업소 2개를 리모델링해 제1동은 지하1층 지상3층, 제2동은 지상1층 등 연면적 총 534.67㎡로 조성됐다. 제1동에는 1층에 카페, 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실, 3층에는 청년센터와 청년인큐베이터가 들어섰다. 1층 카페에서는 '마을 굿즈' 판매할 계획이며, 3층의 청년센터 및 청년인큐베이터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제2동에는 명덕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만든 '마을기록관'이 만들어져 상설 및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명덕마을 기록관은 2023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과 공휴일 휴무다.

### 남목마을도시재생사업 나눔센터·배달형 창업플랫폼 조성

남목마을도시재생사업이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동부동 310-15번지 일원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중인 가운데, 나눔센터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나눔센터는 총 사업비 31억(부지매입비 11억, 공사비 등 20억)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828㎡ 규모로 리모델링되며 낭만주막, 문화시설,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공유 주방, 프로그램실 등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배달형 창업플랫폼' 조성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구청은 동구 미포 3길 7에 위치한 2층 규모의 낡은 건물을 매입했으며 건물을 리모델링해 배달형 상가 3개와 배달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 만들어지는 배달형 상가는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및 주민에게 약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동구청은 향후 상가입점 대상자 선정시 남목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업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특화상품 관련 업종 등에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쉼터 공간은 배달서비스 종사자들이 대기시간동안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활용된다.



# 남목의 새로운 독서 문화공간 '마성만화도서관'



천애란 명예기자

마성만화도서관은 2010년 2월에 개관했던 남목작은도서관을 만화도서관으로 변경해서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남목도서관과 차별성을 두고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개관했는데, 남목작은도서관에 있던 책 13,000여 권은 남목도서관 보존실에 보관을 하고, 현재는 4,800여 권의 만화책과 4,300여 권의 일반 도서를 구비해놓고 이용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만화책 나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용자들이 만화책을 읽고 느낀 소감을 짧게 메모해서 나무 모양의 판에 붙이는 형식이었다. '유미의 세포들'을 읽고 다양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과, 여러 가지 만화책들이 많아서 참 좋다는 문구가 보였다.

웹툰부터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남녀노소 모두 볼 수 있는 만화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학습만화도 많이 있으며, 오랜 기간 꾸준히 인기를 누리는 내용의 만화와 성인들이 유년시절에 보았던 만화, 어린이들도 좋아할 만한 만화들이 많다. 또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만화와 신간만화도 준비되어 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나도 만화가 '4컷 만화 완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만화 추천도서 전시, 만화 캐릭터 색칠하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만화책 읽고 창의활동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만화 창의활동 재료를 배부하고 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에는 독서동아리 '산책'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독서 토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문화강좌를 개설해놓고 도서관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처음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책만 있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서 보고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볼 수 있는 만화가 많아서 신규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남목에 살고 있는 어느 중학생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병영에 있는 산전만화도서관까지 가서 만화책을 보고 책을 대출해왔다고 한다. 13km쯤 되는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가방에 좋아하는 만화책을 가득 넣어 페달을 밟았을 그 학생을 떠올리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이제는 가까운 곳에 만화도서관이 생겨서 힘들게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순정만화를 보며 잠시 추억을 되새기며 편하게 마음을 쉬는 주부들의 모습도 종종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원들이 출근하면서 만화책을 반납하고 퇴근할 때 책을 대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와서 만화를 보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날은 신발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다고 한다. 마성만화도서관이 남목의 새로운 독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람 있었다고 한다.

마성만화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몇가지 있다고 한다. 현재 동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납 기일을 잘 지켜주고, 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다루어주길 부탁했다. 또, 학생들이 만화책을 즐겨보는 만큼 일반서적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성인들이 보는 폭력성이 있는 만화책을 접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의미 있게 돌려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며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마성만화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구청에도 감사의 마음 전한다.



### 울산동구 마성만화도서관

-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70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 2층)
- 이용시간 : 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이용문의 : 052) 209-3947



# 2023년부터 울산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주요내용** : 점심시간(12시~13시) 중 민원업무 휴무
  - 점심시간 중 민원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전입신고, 인감증명, 복지상담 등의 민원사항은 13시 이후 가능
- **시행기관** : 구청 모든 부서,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점심시간 중 민원발급 방법

- 동구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우측 표 참고)
- 정부 24, 복지로, 국세청 홈텍스 등 인터넷 발급

사이트명	발급가능민원
정부24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국세청홈텍스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등
대법원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종, 제적 등·초본, 출생·개명신고 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확정일자

### 동구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동명	실지 장소	운영시간	발급인원
계	20대		
구청	동 구 청 민 원 실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방어동	방 어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방 어 동 행 정 복 지 센터 2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주)현대이포조선한우리회관	06:00~20:00	기본(102종)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진자점	07:00~23:00	기본(102종)
	한마음새마을금고 화암자점	07:00~23:00	기본(102종)
일산동	꽃 바 위 문 화 관	24시간	기본(102종)
	일 산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서류
화정동	홍 플 러 스 울 산 동 구 점	08:00~24:00	기본(102종)
대송동	화 정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서류
전하1동	대 송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서류
	전 하 1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서류
전하2동	울 산 대 학 교 병 원	24시간	기본(102종)
	현대중공업(주) 정문면회실	24시간	기본(102종)
남목1동	전 하 2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남 목 1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서류
	남 목 2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남목2동	서부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08:00~21:00	기본(102종)
	남 목 3 동 행 정 복 지 센터	24시간	기본(102종), 가족관계, 동기부등본
남목3동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10:30~20:00	기본(102종)

울산광역시 동구

※ 차량등록, 여권발급,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가족관계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수령 등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한 민원은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동구청 총무과(052-209-3100)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지역상담소 운영

울산 동구에 있는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새해부터 울산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상담소'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0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상담소'를 14곳으로 확대하면서 울산에서는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1999년 상담업무를 시작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의료·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할 계획이다.



## 동구청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사업

### 전국 지자체 외국인 주민지원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장관 표창수상

울산시 동구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공모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동구 정착지원단 운영사업인 '낮선 이방인들과의 동반성장기'(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단 운영)가 행정안전부장관상(장려상)을 수상하고 3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정착사업이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음에도 동구청이 민·관·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착지원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감 분위기 조성, 주민 불안 해소 등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내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동구청 “테트라포드 위 낚시 삼가해 주세요”

울산시 동구청이 지역 해안가 등에 낚시객들의 방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방어진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등 4곳에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를 삼가해 달라'는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한편 동구지역에서는 대왕암공원 갯바위, 슬도방파제, 방어진항, 화암추등대 방파제 등 4곳이 연안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진항은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테트라포드는 경사가 심해 미끄러지기 쉽고 추락할 경우 구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칫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외진 곳에서 혼자서 낚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요청도 쉽지 않아 낚시객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모두 함께 '더 잘사는 동구'를 만들어 갑니다

1. 동구청은 동구지역 어린이 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11월 23일 옥류공원과 댄박공원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2. 동구청은 12월 7일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대왕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술창업과 관광활성화 분야 12개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3. 동구청은 청년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5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Dong-gu is making it with the residents*

4. 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상선)은 11월 28일 위기에 처한 청·장년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주민발굴단 '똑똑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동구청은 10월 25일 동구청에서 보성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성세빈선생 바로알기'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6. 제1회 새싹어린이 풋살대회가 11월 9일 동구지역 어린이집 및 클럽 40개팀의 어린이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구청에서 열렸다.
7. 동구는 11월 18일 대왕암공원 일원에서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생활체험행사를 열었다.
8. 동구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센터 '꽃방'을 마련하고 11월 25일 개소식을 가졌다.
9. 동구 자율방범연합회(회장 박원철) 한마음 전진대회가 11월 13일 히딩크드림필드에서 열렸다.
10. 동구노인복지관은 12월 6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등 실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1.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지회장 천두식)는 10월 27일 서부시민운동장에서 어르신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12. 동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규자)는 11월 8일 전하체육센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



2



3

## 사랑의 손맛 김장 담그기 행사



4

*Dong-gu is making it with the residents*

## 작지만 큰 사랑이 따듯한 동구를 만듭니다

1. 동구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회장 이창호)은 12월 6일 지역아동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2. KT울산지사 동울산지점(지점장 임현정)은 12월 8일 저소득층에게 나눠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전달했다.
3.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회장 김성하)는 11월 30일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개동 취약계층 130세대를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4. 동구 성원상폐빌방범대 김진국 회장과 이삼기 고문은 12월 5일 진성골 경로당에 40만원 상당의 쌀 10포를 기탁했다.

- 5. ㈜프론티어(대표 장춘배)는 11월 29일 홀로어르신 10세대를 대상으로 집 청소 및 방역소독 등 30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6. 그린리더 동구지회(회장 김길주)는 11월 25일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60여만원을 전달했다.
- 7. BNK투자증권은 11월 18일 송봉호 시너지추진부 본부장 등이 동구청을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80채를 기탁했다.
- 8. 동구청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동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안윤영)는 공공복지대상 수상금 및 회비 등 2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200여명을 초청해 11월 9일 영화관람을 지원했다.
- 9. NH농협은행 동울산지점(지점장 이상근)은 11월 16일 아프간특별기여자의 초등학교 자녀 26명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전달했다.

- 10. '요트탈래' 강대금 대표는 11월 1일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1,500만원 상당의 요트 이용권 500매를 전달했다.
- 11. 국제로타리3721지구 울산해국로타리클럽(회장 우순애)은 11월 1일 취약계층을 위한 150만원 상당의 쌀 40포를 전달했다.
- 12. 호남향우회 동구지회(회장 문재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 제8대 동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및 제208회 제1차 정례회



동구의회는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551억원보다 499억원 증가한 405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심)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가운데 6개 사업(5억7900만원) 예산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했다.

5분자유발언에서 이수영 의원은 동구문화재단 설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 재단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윤혜빈 의원은 인도 불법 점유물 정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관리 등 장애인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제20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렸다. 의회는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운)를 구성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윤혜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이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

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임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도 가결했다.

# 동구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동구의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조선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지속된 불황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탓에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연장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체계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경옥 의장



이수영 부의장



강동호 운영위원장



박문옥 의원



박은심 의원



임채운 의원



윤혜빈 의원

# 의정활동 포토 NEWS



## 제1회 울산 동구 염포산 마라톤대회 개최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9월 25일 서부구청장에서 열린 '제1회 울산 동구 염포산 마라톤대회 개최식'에 참석했다.



##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특별채화

동구의회 의원들은 9월 30일 대왕암공원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특별채화 행사에 참석했다.



##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공사 준공 및 개장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10월 16일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공사 준공 및 개장식'에 참석했다.



## 제14회 찾아가는 열린 의회교실

동구의회와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동구지회는 10월 19일 의회 의사당에서 녹수초등학교 5학년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제14회 찾아가는 열린 의회교실'을 열었다.



## 제9회 싱싱 페스티벌

동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1일 화정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싱싱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 제5회 동구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동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3일 히딩크드림필드에서 개최된 '제5회 울산 동구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세빈에 대하여

# 항일독립운동의 요람 보성학교와 성세빈 교장

이현호 우신고 교사·전 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성세빈 선생은 1893년생으로 동면 일산리 40번호(현 동구 일산동 213번지)에서 태어났다. 지금의 일산해수욕장에 위치한 일산진 마을이다.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출중한 실력을 보였다. 1909년 일산리에 세워진 사립 보성학교에 다니며 근대적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학교 설립에 부친 성수원이 가장 많은 설립 의연금을 냈기 때문이다.



성세빈 선생이 10대 성장 과정에서 항일독립정신이 형성된 것에는 어업 관련 일본인과의 충돌 사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선생이 태어난 일산진은 동구에서 어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1909년 당시 총 호수 49호(208인) 가운데 어업 종사자가 41호(186인)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근의 방어진에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어업자들이 몰려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1909년 4월

한국어업법이 시행되자 그들은 울산 곳곳의 어장을 매매 또는 합법을 가장하여 강탈하여 갔다.

1910년 국권피탈 이전부터 울산에서는 일본인 어업자들과 충돌이 있었고, 특히 동면 일산진에서는 그들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여럿 발생하고, 수십 명이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당시 ‘기막혀 죽겠네’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던 신문 뉴스에는 한인 어부만 체포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그들이 발동기를 단 트롤어선으로 방어진 앞바다의 어장을 남획하고, 울산 연안 해조류 매매계약을 독점하자 천여 명이 넘는 어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 때 일본이 울산 앞바다에 10척의 군함을 보내 함포를 쏘면서 군대를 상륙시켜 시위행진을 하는 등 무력행동을 하자, 이에 놀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속으로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 당시 애국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주먹을 쥐고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군함과 군대를 피눈물로 노려봤다는 당시 성세빈 선생의 처사촌 김천해의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일산리가 왜 다른 지역보다 항일정신이 강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성세빈 선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

선생이 항일독립운동에 직접 투신한 것은 1919년 3.1운동부터였다. 선생이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증언과 더불어 1929년 4월 21일 신간회 울산지회로부터 울산군내 민간교육공로자로 표창을 받으며 밝힌 표창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성세빈)씨는 10년 전 조선의 현상을 개탄하며 만주 급 각지로 순유하다가 귀향한 후 동면청년회를 창립하는 일방으로 무산자를 집합하여 3년간 야학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사립 보성학원을 건축하여 이래 9년간 전력을 다한 결과 금일에는 2백여 명의 생도를 수용 교수 중”

위의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와 집안에 내려오는 자료를 종합해보면, 10년 전 조선의 현상을 개탄했다는 것은 3.1운동을 말하며, 3.1운동 직후 선생은 만주, 상해, 일본 등지를 돌며 항일독립운동 상황을 살펴보고 귀향하여 청년운동단체를 조직하고 보성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선생의 이러한 항일독립운동 활동 결과 동면 지역에는 소년회-청년회-신간회로 이어지는 일관된 항일독립운동 조직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선생은 동면 지역을 넘어 울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국 차원에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세빈 선생은 연설 실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6년 3월 21일 울산군청년연맹 주최의 남선웅변대회에서 연사로 참여해 ‘新生(신생)의 의의’라는 주제의 웅변을 하였는데, 웅변대회에 참여한 10여 명의 연설 가운데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고 당시 신문보도는 전하고 있다.



1929년 3월 1일 ‘보성학교 전경’이란 제목의 사진(위)을 보자. 이 해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었다. 보성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운동장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키 순으로 선 학생들 뒤쪽에 교사들이 서 있는데 그 중 가장 왼쪽에 두루마기 차림의 교사가 성세빈 선생이다. 그런데 촬영 날짜가 3월1일이다. 학교 교사와 학생들 모두 이날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기 위해, 즉 이 사진은 의도적으로 3.1운동 1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찍은 것이다.

동구 화정동의 화정공원에는 독립운동가 서진문 선생의 묘소가 있다. 서진문 선생은 보성학교 교사였고, 성세빈 선생의 고종사촌이었다. 일본에서 독립운동 활동 중 일제의 탄압으로 사망한 서진문 선생의 장례식이 1929년 1월 12일 고향인 일산진에서 치러질 때, 각 단체의 연합으로 여러 동지가 상여를 메고 운구하였고,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우측 사진)



비석에는 ‘고 서진문군지묘 1928년 11월 일 동지 립’이라는 비명을 새겼는데, 동지(同志)라는 글자를 쓴 것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이 비(碑)명은 성세빈 선생이 직접 쓴 글씨로, 일산진 바닷가에서 월정사 옆 묘소까지 직접 선생이 돌을 안고 운반해 세운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일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성세빈 선생과 보성학교를 불온하다며 학교 폐쇄 명령으로 탄압을 가하였다. 결국 성세빈 선생은 교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이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식, 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 ‘사회의 사표’로 불린 선생은 안타깝게도 1938년 6월 25일 46세의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선생의 장례식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진 한 장(아래 사진)이 남아 있어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인다. 사진에는 ‘창립주의 고별식, 고 성세빈과 보성학원’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장례식에 당시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선생이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 참석했다는 증언을 통해 성세빈 선생의 명성과 독립운동 활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 동구의 맛을 찾아서

## 누구나 사랑하는 그 맛, ‘중국집 볶음밥’

글 : 이상길 칼럼니스트 / 울산제일일보 기자이자 울산 동구 서부동 토박이. 영화 및 드라마 파워블로거. 최근에는 간간한 입맛을 바탕으로 내돈내산 맛집 탐방을 하며 맛 칼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동구란 지역이 그렇다. 조선소 작업복을 일상복처럼, 심지어 결혼식장에 입고와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조선소가 있던 전하동이나 꽃바위 근처, 어선이 드나들던 방어진항 주변은 늘 굵은 땀방울을 닦아내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로 북적였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회사 앞 식당 입구에 이런 손님들이 벗어놓은 작업용 장화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는 예전부터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음식점이 바로 중국집이다. 중국집이 어떤 집이냐, 중국집은 늘 우리와 함께 했다. 입학식을 하거나 졸업식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도록 빠르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게 해 주는 대표적인 음식점이다.

자장면 볶음밥 탕수육 등 메뉴도 다양해서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빠르고 친절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참 많은 중국집이 있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맛이든 서비스든 각자의 비법을 갖고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흔히들 자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볶음밥이 그 집 맛을 파악하기에는 더 유용하다. 왜냐면 볶음밥을 시키면 자장소스와 짬뽕 국물이 같이 나오기 때문. 따라서 볶음밥을 시키면 그 집 춘장의 맛과 중국 음식의 대표적인 조리 기법인 볶음 수준, 또 짬뽕 국물의 깊이를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볶음밥의 화룡점정은 바로 계란 후라이다. 아무리 밥이 잘 볶이고, 자장 소스도 맛있고, 짬뽕 국물 역시 깊이가 있어도 계란 후라이가 올려 지지 않은 볶음밥을 감히 볶음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당히 잘 튀겨낸 계란 후라이는 볶음밥에 생명을 부여하는 아이템이다.

어린 시절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처음 먹게 됐던 그날로 잠시 돌아가 보자. 정말이지 신세계도 이런 신세계가 없더라. 기름에 잘 볶여 입 안에서 뒹굴다 터지는 밥알의 맛은 차라리 밥이 아닌 새로운 음식이었고, 사이사이 양념처럼 떠먹는 자장 소스의 맛은 자장면에서 알고 지냈던 그 자장 소스와는 뭔가 달랐다.

1980년대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볶음밥의 포스가 제대로 느껴졌다. 내공이 느껴지는 잘 볶아진 밥은 그 곁에 맛깔 나는 자장 소스를 품고 있었고, 밥 위에 다소곳하게 올려진 계란 후라이는 아래쪽은 바삭하게, 위쪽은 노른자와 흰자가 살아 있었다.

그랬던 볶음밥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 계란 후라이가 나오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옛날식 볶음밥이 늘 그리웠다.

그러던 중 최근에 울산 동구에서 46년째 영업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 아직 영업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바로 방어진 어판장 근처에 위치한 ‘한화장반점’.

역시나 오래된 만큼 가게 내부는 옛날 중국집 풍경이 물씬 느껴졌다. 친근한 옆집 아저씨 풍채의 조사관(78)씨가 울산 동구에서 중국집을 열게 된 건 지난 1976년 11월 15일. 조씨가 개업했을 당시 동구에는 조씨보다 먼저 개업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이미 폐업을 해서 현재는 조씨의 ‘한화장반점’이 울산 동구에선 가장 오래된 중국집이다.



볶음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바삭한 군만두를 먼저 먹으면서 조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참, 조씨 곁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 같이 곁을 지켰던 아내 이종순(73)씨가 있었다. 월남 참전 용사인 조씨는 제대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 후 당시 공업도시로 변모해가던 울산 동구로 내려와 중국집을 차리게 됐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한결 같은 맛으로 열심히 장사를 한 덕에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도 살 수 있게 됐다. 또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낼 수 있었다며 뿌듯해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즈음에 기다리던 볶음밥이 나왔다. 1980년대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볶음밥의 포스가 제대로 느껴졌다. 내공이 느껴지는 잘 볶아진 밥은 그 곁에 맛깔 나는 자장 소스를 품고 있었고, 밥 위에 다소곳하게 올려진 계란 후라이는 아래쪽은 바삭하게, 위

쪽은 노른자와 흰자가 살아 있었다. 한 입 떼더니 46년 동안 쌓인 내공이 단번에 느껴졌다. 다만 밥알이 생각보다 꼬들하진 않아서 먹을 땐 조금 아쉬웠는데 다 먹고 난 뒤 기름기가 들어갔는데도 속이 너무 편해서 손님을 생각하는 주인장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졌다.

울산 동구로선 오래 남아줬으면 하는 곳이지만 ‘한화장’의 주인장인 조사관씨는 지금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어느덧 여든을 앞두고 있는 나이로 힘이 많이 부치는 것. 때문에 그는 이날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같이 고생해준 아내에 대해 유독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다.

볶음밥은 밥과 야채를 기름에 잘 볶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음식이다. 부부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금슬 좋은 이 부부가 볶음밥을 잘 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한 듯 했다.

〈현장탐방〉 이웃사랑 빨래터

“깨끗한 빨래감으로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최선자 명예기자

동백꽃이 반질반질한 잎사귀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전하경로당 1층 모퉁이에 ‘이웃사랑 빨래터’의 문패가 보인다. 여기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경로당 시설 등의 빨래감을 세탁해주는 곳이다. 빨래터에 들어서니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 1대씩 자리 잡고 있다. 전문세탁소에서나 볼법한 큼직한 덩치의 세탁기는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잦아지자 동구청이 지난 11월 전기식 최신 기계로 교체해 주었다.

빨래터는 주 5일, 1일 2회(10시~12시, 14시~16시)에 운영되고 있다. 1999년부터 동구여성전문봉사회 빨래터팀 자원봉사자들이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어느새 23년의 세월이 흘러 50대였던 봉사자의 나이도 70대가 되었다.

초창기 멤버로 참여한 김병순(71세) 씨는 “외로운 사람들은 이불이나 옷가지가 깨끗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 그래서 빨래감이 없어도 봉사하는 날에는 꼭 나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당번 일에 함께한 한미옥(62세), 임정자(68세) 씨 옆에는 커다란 세탁기 속 이불 빨래감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 두런두런 이웃들의 안부를 나누는 봉사자들의 손놀림도 바빠진다. 세탁이 다된 빨래를 배달하기 위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개서 뽀얀 얼굴로 주인에게 안겨줄 준비를 한다. 봉사자들은 널찍한 공간은 큰 세탁기에 내어주고 남은 공간에서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로 웅기 웅기 모여앉아 휴식을 취하지만, 깨끗한 빨래감을 받

아 기뻐할 이웃의 생각에 흐뭇해진다.

일부러 빨래감을 들고 ‘이웃사랑빨래터’로 찾아오는 독거노인에게는 이곳이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담터가 되고 있다. 봉사자가 없을 때 수시로 나오는 김성완 총무는 “우리 이웃에 어렵고 몸이 편찮은 저 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무료 이불 세탁을 제공해, 청결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변함없이 봉사하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은 세심하고 따스하다. 물려드는 빨래감을 바쁜 중에도 미처 호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한 비상금과 동전 등을 챙겨서 비닐봉지에 고이 싸서 주인의 손에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이곳에선 특히 수해나 화재와 태풍, 호우 같은 재해 입은 이재민들의 빨래감도 세탁해 주는데, 그럴때는 특히 더 정성을 쏟게 된다고 한다.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까지 그들의 정성과 사랑은 끝이 없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과 똑같은 마음으로 빨래터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하는 그들의 나눔에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울겨울에는 그들의 수고로 인해 깨끗해진 이불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는 이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동구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37년, '동부동 미도통닭'

이정은 명예기자

각자의 삶을 종이 위에 펼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삶의 크기도 내용도 모두 제각각 다양하겠지만 미도통닭을 39년 째 운영중인 김제곤(74세), 강영순(71세) 부부사장의 크기는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김제곤 사장은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70년대 취직을 했다. 기술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로 갈등하다 198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 집식구에게 음식을 주는 마음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1986년도에 명덕에서 통닭집을 열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밑천으로 절실하게 시작했지만 3개월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쉽게 생각했던 튀김 닭은 몇 백 마리를 튀기며 연습을 해도 어려웠다. 고민을 하고 또 하고 튀기고 또 튀기고, 그렇게 조금씩 미도통닭을 완성시켰다.

1980~90년대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동구의 모든 것이 전성기였고 덩달아 치킨집도 전성기였다. 현대중공업 정문으로 근로자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고 나가던 그때는 손님도 가족, 친구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과별, 부서별, 사업부별로 단체로 통닭집에서 회식을 많이 했다. 미도통닭의 대표적인 결들임 메뉴인 콩나물국과 곁절이 김치는 퇴근 후 통닭으로 하루의 고된 노동 피로를 푸는 근로자들을 위해 부부사장이 고민 끝에 만들어 낸 메뉴이다.

통닭이 밥은 아니지만 저녁식사다운 통닭을 주고 싶었던 부부 사장은 콩나물국과 곁절이 김치를 생각해냈고 덕분에 지금은 썬터키치킨 만큼이나 유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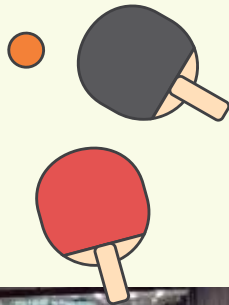
콩나물국은 코로나로 인해 매장 내 장사를 할 수 없었던 2년 전부터 결들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곳을 기억하는 수많은 단골들의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으로 남아있다. 젊은 열정을 바쳐 운영하던 미도통닭은 가게를 비우라는 주인의 요구로 2003년 남목인 지금의 위치로 이전을 했다. 이미 프랜차이즈 통닭집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시기에 가게 이전은 그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었다.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라는 유혹과 냉동 닭과 수입 닭을 쓰라는 권유도 수없이 받았지만 밤을 새우며 고민해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었다.

1985년 집을 팔아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닭을 튀겼을 때 먹었던 그 마음. '내 집 식구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했던 그 마음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고. 김제곤 사장은 오늘도 생닭이 도착하는 오전 8시에 맞춰 오전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그 날 받은 닭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

울산의 맛 집으로 소문난 비법을 물으니 특별한 것이 없단다. 프랜차이즈 보다 훨씬 큰 크기의 신선한 국산 생닭을 사용하는 것, 도착한 생닭은 5가지의 한약재를 넣은 물에 씻어 냄새를 제거하는 것, 모든 재료는 가장 좋은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것 뿐이란다. 37년을 지켜온 이 소소한 비법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순간을 이겨 내야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간절히 70세가 넘는 노부부사장의 건강을 기원한다. 그들의 건강만이 미도통닭집을 우리 곁에 오래 두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스트레스 풀고 건강 다지는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탁구교실’로 오세요”

이우명 명예기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쯤이 되면 전하2동행정복지센터 3층의 다목적 홀에는 탁구대가 설치되고 25명 정도의 남녀 회원들이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고 스트레스도 날리기 위해 속속 모여 든다.

조를 나눠 탁구게임을 시작하는데 사뭇 진지하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한다. 금세 탁구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다. 시원하게 공을 때려주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나도 한방 날릴 수 있다고 품도 잡을 수 있으니, 탁구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을까? 보약 같은 운동이 바로 탁구다. 운동 중에서도 가장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가 요구되는 경기가 바로 탁구이다. 실내운동이니 사시사철에, 라켓과 공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벌써 수년째 탁구 교습을 하고 계시는 변성숙 선생님. 생활스포츠지도사로서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탁구대 위에 넘친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지도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교습이 시작되면 매의 눈으로 주시한다. 라켓은 똑바로 잡았는지, 팔에 힘은 빼는지, 공을 똑바로 보고 치는지를 보면서 공을 토스해 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바로 지적을 하면서 몸소 자세를 교정시켜준다. 막상 경기를 할 때는 교습 때 배운대로 되지 않는데, 회원 상호간에 지적도 해주고, 또 선배들이 한 수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한 분이 있으니 바로 김종원 회장이다. 탁구대 설치 및 관리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 회장의 몫이다.

아무튼 화기에애한 분위기다. 많이 웃고 뛰고 공을 치고받고 땀 흘리는 사이 한 시간 반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후다닥 가버린다.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문을 나서니 개운하기 그지없다. 상쾌한 기운이 이마의 땀방울을 흠친다. 겨울을 앞둔 오후 5시 반을 넘기니 바깥엔 어둠이 제법 깔리고 날씨가 꽤나 쌀쌀하다. 그렇게 많이 뛰면서 땀 흘리고, 공을 때리고 하다 보니, 배가 속 들어갔다. 저녁밥을 생각하니 벌써 허기를 느낀다.

이렇듯 탁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숙한 운동이다. 꿈 많던 학창 시절과 즐거운 직장 생활 때 탁구 한번 안쳐 본 사람 어디 있으랴. 누구나 좋은 추억 하나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지마는 막상 살다보니 탁구장에 갈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 손을 놓고 지낸 지가 꽤나 되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서슴치 말고 와 보길 바란다. 한번만 발을 디더보면, 청량한 탁구공 소리가 다목적홀에 울려 퍼지는 전하2동 탁구교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 제1회 동구 문화예술인발표회 성황리에 열리

이준걸 명예기자



동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1회 동구 문화예술인발표회가 11월 30일 오후 한마음회관 극장에서 열렸다.

참가 신청을 한 문화예술인 단체 동아리 17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개팀이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을 선보인 팀은 JM 장구박스, 실버극단 ‘한마음’, 동구문화원 민요연구회, 다운 색소폰동호회, 동구문화원 무용연구회, 울산 통기타 ‘나도 친다’, 울산아리랑, 기타 듀오 ‘크레센도’, 서이밴드, 하모니카 동아리 ‘아람’ 등이다.

이날 참가한 문화예술인들은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봉사활동과 버스킹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나누었고, 이런 문화행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동구문화원이 신축되어서 문화예술인들의 연습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거나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가 육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가팀 대부분은 인생 2막을 즐기며 봉사하는 멋진 실버들이다.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기기를 바라며, 제2회 문화예술인 발표회가 열릴 때가 기다려진다.

# 동민이 하나 되는 제1회 동구 일산동 동민화합한마당 축제

유병기 명예기자



햇살이 화창한 지난 10월 28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비치 플로깅축제’라는 이름으로 제1회 동민화합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일산해수욕장 일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으로 시작됐다. 참가자 모두가 같은 티셔츠를 입고 신라시대 왕들의 여름 휴양지였던 어풍대가 있던 일산동의 상징과도 같은 일산해수욕장을 거닐면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환경정비 이후 본격적인 동민화합한마당축제가 열렸다.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으며, 노래자랑 경연으로 행사장 열기는 더욱 달아 올랐다. 물 맑고 공기 좋은 동해바다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성공적인 제1회 일산동민화합한마당축제 였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 여성들의 자국 동화를 엮은 '우리 모두 다 예뻐'

전수영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다문화동화책 출판기념회

울산 동구에 사는 일본인 여성 마치꼬씨와 그림책봉사단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꼬씨는 '복숭아에서 나온 모모 타로'라는 동화를 들려주고 그림책 봉사단은 복숭아 색종이 접기, 책 속에 나온 단어들을 일본말로 알아보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전통문화 이야기 나눠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말을 물어보기도 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마치꼬씨가 읽어주는 동화는 '우리 모두 다 예뻐'라는 동화책 속에 있는 일본 전래동화입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몽골,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등 7개국의 동화 15편이 실려 있습니다. 동화 속의 삽화는 울산 애니원고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이 어떻게 출간하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뻐'는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동구의 특성상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그들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동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읽어준다면 다문화 여성들의 활동도 지원하고 아이들이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먼저 다문화 여성분들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모국동화를 한국말로 들려줄 만큼 한국어에 능숙한 다문화 여성분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또 지도작가인 윤창영 작가를 통해 알아보니, 동화책 출간과정은 우리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차저차하여 다문화 여성분들을 섭외하고 애니원고 학생들로 구성된 삽화봉사단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7월 까지 총 10회에 걸쳐 다문화 여성 8명과 윤창영 지도작가의 동화 구술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여성이 구술해 주는 전래동화를 작가가 글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해 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안이 완성되자 이번에 애니원고 학생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8명의 학생들이 2편의 동화를 맡아 각자의 개성이 담긴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다문화 여성작가들과 학생작가들을 초청해 출판기념회도 가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하던 다문화 여성분과 씩씩하게 발표하는 학생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동화책은 울산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 322곳에 1,0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삽화봉사단과 함께 다문화 여성들의 동화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까지 몽골, 일본 여성분 2분이 활동해 주셨고 방학기간이 지난 후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화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동화와 비슷한 내용의 동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문화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동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이 공정한 시각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밀알영상제

이진규 명예기자



밀알영상제 수상자들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밀알영상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남목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창열)주관으로 열린 영상제는 14회라는 타이틀이 말해주듯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영상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케이팝(K-POP)과 함께 케이무비(K-movie)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지금, 청소년과 그들이 만드는 영상제의 의미는 남다르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하나 성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활동을 쉽 없이 지켜 온 남목청소년문화의집의 저력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영상제에는 전국에서 205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14개교 1,136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 205개의 수치는 올해 개최된 전국의 각종 청소년 영상제와 명성 높은 영상제를 모두 포함해서도 가장 많은 작품수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칭타오 국제학교의 참여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참여 할 정도로 대한민국청소년밀알영상제의 인지도는 가히 전국 최고라고 볼 수 있었다. 이번 영상제의 심사는 전국대회와 울산대회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수, 영화감독, 언론인, 영화평론가 등 각계의 전문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심사에서 결정하는 청소년명예심사위원 대상과 인기상, 그리고 최종 본선 진출작에 대한 오프라인 심사점수 반영 등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기회를 반영하는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제 14회 대한민국청소년밀알영상제 전국/울산대회 최종 수상작				
부문	상격	작품명	소속	
전국 대회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잡자리	서울영상고등학교
	최우수상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상	에어컨전쟁	영주고등학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위원장상	나비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금상	동구청장상	지구	밀알영화고등학교
	은상	동구의회 의장상	일상, 비(VE)일상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동상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장상	정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울산 대회	대상	울산광역시 교육감상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울산제일고등학교
	최우수상	울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상	인공지능의 반란	염포초등학교
	금상	남목청소년문화의집관장상	찐따교류기	울산고등학교
청소년 명예 심사 위원상	대상	울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상	나비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인기상	남목청소년문화의집 관장상	너도 이미 알고 있잖아?	울산제일고등학교

청소년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14년을 변함없이 지속해온 밀알영상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청소년의 성장을 끈질긴 믿음으로 지원해주는 모범답안이 아닐까 싶다. 우리지역에 이런 대회가 있다는 뿌듯함마저 든다.

# 염치(廉恥)

울산인권운동연대 편집위원회



불쑥 내뱉는 말을 돌이켜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뱉어내고는 '왜 그런 말을 했지?' 돌아봅니다. 이유를 찾아낼 때도 있지만, 이유를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렵קות이 '이것 때문인가?'라고 추정해보다가 덮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무의식의 영역에서 불쑥 나의 입(몸)을 통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것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잣대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말들을 보면 무의식중에 나온 말들이 많아 보입니다. 논란이 되면 '혼잣말'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뭐가 잘못이나?'고 항변하기도 하구요.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들은 의식적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단어를 배치하고 사용한 것이겠지요. 스스로 준비한 발언이니 잘못을 찾을 수 없고, '뭐가 잘못이나?'고 역성을 내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혼잣말'은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 잡았던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된 학습과정을 통해 내면에 자리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 발언보다 무의식적 발언은 더 깊이 있고 무게감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야기 나누다가 무심결에 불쑥 튀어나오는 말에 친구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차 싶어 수습한다는 말이 '생각없이 한 말이니 신경쓰지마!'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무의식은 습관의 영역입니다. 습관은 내면에 깊숙이 배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식경기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정식 시합이 시작되면 의식적으로 활동하기보다 오랫동안 반복훈련을 통해 몸에 배인 습관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의식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니 '신경쓰지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잣말이었다'고 덮어두려 해도 안 됩니다.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들으라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혼잣말이든, 목적의식적으로 한 말이든.

실수 또는 잘못을 알고,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고치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염치'입니다. '체면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중용(中庸)에는 '부끄러움(수치)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어야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맹자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염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현들은 '부끄러움(수치심)을 아는 것(知恥)에서 인간의 도리가 비롯된다(예의염치:禮儀廉恥)'고 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절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이었던 박상진 의사는 '염치(廉恥)없는 사회는 결코 정의(正義)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던 청년에게 사비를 털어 위로하며 판결문으로 세상에 울림을 준 박주영 판사는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것은 염치(廉恥)'라고 했습니다.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나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덮고 지나가려는 것은 '염치(廉恥)'없는 행위입니다. '용기(勇氣)'없는 '비겁(卑怯)'한 모습입니다. '정의(正義)'롭지 않습니다. '염치(廉恥)'가 있어야겠습니다.



##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와 함께하는 바람직한 퇴직준비 슬기로운 부부생활 '따로 또 같이'

윤형진 울산동구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커리어컨설턴트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강연과 저작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부부가 젊었을 때는 애욕의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으로 승화되고 나중에는 인간애의 경지에 이른다.” 흔히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랑이 어디 있나, 정으로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퇴직 후 배우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도리어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3,40년을 남편은 직장, 아내는 집과 지역사회, 서로 다른 공간과 생활패턴으로 살아온 부부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한다면 이 또한 서로에게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 전국의 이혼 건수는 10만 2천건이었는데 이중 결혼 한지 30년이 경과된 부부들의 이혼, 즉 황혼이혼의 비중이 17.6%로 결혼 4년차 미만 부부(18.8%)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이제 황혼이혼이 낫설지 않은 분위기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인생2막을 맞이하는 부부에게도 해당된다. 변화되는 생활패턴을 거부하기 보다는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2막에 더 멋진 부부관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관계에도 ‘따로 또 같이’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따로 할 것은 따로 하고 같이 할 것은 같이 하자는 것이다.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첫째는 일·활동의 ‘따로 또 같이’이다.**

인생2막에서의 일·활동은 취업, 창업 등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학습, 자원봉사, 여가, 모임 등 의미를 두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경우 부부간의 특성을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통상적으로 남편은 경제활동에는 익숙한

반면 그 이외의 활동에는 낯설고 반대로 아내는 학습 등의 사회활동에는 능숙하지만 경제활동에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상호 멘토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동시에 부부가 같이 할 일과 따로 할 일을 미리 구분해 놓은 것이 꼭 필요하다. 자칫하면 괜한 일로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같이 하면 힘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은 간섭이 되거나 서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식생활의 ‘따로 또 같이’이다.**

퇴직 후 자녀들은 분가하여 부부만 남게 되고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경우 남편은 흔히 말하는 삼식이 될 수도 있다. 삼시세끼를 같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반복하는 일은 안 그래도 무료해지는 퇴직 후 일상을 더 지루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루 세끼 중 한 번 이상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 각자의 지인들과 시간을 갖거나 혹은 혼밥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식사준비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한 끼의 식사가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시도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무료한 일상에 특별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셋째는 거주생활의 ‘따로 또 같이’이다.**

퇴직하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진로를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귀농귀촌이다. 단, 남편과 아내의 대답이 좀 다르다. 남편은 귀농귀촌을 원하지만 대개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도시를 고수하고 싶어 한다. 여기도 조정이 필요하다.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처럼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다. 어쩌면 매일 같은 집에서 얼굴을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늘 그막의 주말부부는 한 번쯤은 해 볼 만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인정하되 구속하지 않는 것, ‘따로 또 같이’는 오랜 세월 느슨해지고 시들해진 부부관계를 새롭고 매력 있는 관계로 변화시켜 잊혀져간 애정을 다시 불러오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 울산 남목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추천 도서



## <위대한 변방, 울산>

김상욱 지음 / 지식과 감성

<위대한 변방, 울산>은 25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김상욱 저자가 울산시 동구 부구청장 재직시 공직 경험과 울산에 대한 지식을 담은 정책에세이이자 울산지역의 향토사를 공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다. 그동안 언론과 블로그에 발표했던 글을 모아 380쪽 분량의 책으로 펴낸 이 책에는 울산 스토리텔링, 역사도시 울산의 문화 이야기, 산업수도 울산의 사회 이야기, 장생포 고래 이야기, 방어진 바다 이야기 등 5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있다. 동구 방어진항 주변의 도시 발달 배경, 1927년에 있었던 울산-방어진간 철도 부설 청원 운동, 방어진 용가자미, 동축산 동대와 어룡대에 관한 이야기 등을 폭넓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 <GV빌런 고태경>

정대건 지음 / 은행나무

흥행에 실패한 독립영화 감독 조해나가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에서 'GV빌런' 고태경을 만난 뒤, 그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조해나와 고태경은 '영화라는 꿈을 위해 달렸으나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과거를 돌아본다. 분명 열심히 살았음에도 실패한 주인공의 모습은 꿈을 향해 달리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다. 경쟁의 시대에서 꿈을 좇는 청춘과 실패에 대해 현실적이고 재미있게 그려낸다. 꿈과 사랑, 믿음, 위로를 이야기하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꿈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돌아보는 건 어떨까.



## <눈, 물>

안녕달 지음 / 창비

눈이 내리는 겨울 밤, 여자는 '눈아이'를 낳았다. 차가운 아이는 온기를 받으면 녹아내리고 만다. 그래서 차마 자신의 품에 안지도 못하고 눈으로 벽을 쌓고서는 바라만 본다. 이내 계절은 점차 바뀌고 녹아가는 아이를 위해 '언제나 겨울'이라는 장치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도시로 간다. 화려하면서도 정신없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눈아이'를 지키기 위해 장치를 구해올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계도 하나쯤 각자가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하며 힘들지만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각자의 '눈아이'는 누구일지, 우리는 그걸 이미 잃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쯤 생각해보게 한다.



## <미움 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 / 인플루엔셜

자유롭고 행복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책은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심리학책이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일본 철학의 1인자 기시미 이치로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의 저서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대화체로 표현했다. 이 책에서 아들러는 타인에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용기의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갈망하는 인생의 행복한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마음병에는 책을 지어드려요>

이상우 지음 / 남해의봄날

우리가 사는 곳과 가까운 경주의 어떤 한의원에는 환자들에게 딱 맞는 좋은 책을 권하는 한의사가 있다. 저자가 환자들을 만나 다양한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책을 권하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의사’라는 직업이 가져야하는 기본 덕목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책속에 담겨있다. 한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환자들의 상황에 맞는 책을 권하며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선순환 하도록 돕는다. 약과 침으로 할 수 없는 환자들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한다. 동네 사랑방 같은 한의원에서 환자와 소통하며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책을 읽고 필사하고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저자는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며 환자가 혼자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의원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책 속에 친절히 설명해 놓은 추천 도서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골라 읽고 실천한다면 한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왼손에게>

한지원 글·그림 / 사계절

<왼손에게>는 우리 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다.

사람마다 주로 쓰는 손이 다르겠지만 이 책은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오른

손과 왼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양치질, 가위질, 빗질, 손가락질까지 모두 자신의 일이었던 오른손은 점점 화가 난다. 왼손도 할 일을 하지만 오른손만큼 정교하게 작업하지 못하고 크림을 바르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만 쓰는 왼손이 오른손은 밉기만 하다.

왼손의 입장을 보면 항상 자신이 하기 전에 오른손이 먼저 해버리고, 오른손이 힘들어할 때 왼손이 다가가 돕지만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왼손과 오른손은 떨어질 수 없고 서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모기를 함께 잡을 때처럼 멋진 짝이 될 수 있다.



###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글·그림 / 사계절

눈이 펄펄 오는 어느 날 밤, 두더지는 고민에 빠져 길을 걷기 시작한다. 두더지 머릿속에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문득, 두더지는 ‘고민이 있을 때는 고민을 말하면서 눈덩이를 굴려 보렴.’ 하고 할머니가 해 준 말이 떠올라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한다.

두더지의 고민은 바로 친구가 없는 것이었고 곧 눈덩이는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눈을 굴리는 것에만 집중한 두더지는 다른 동물들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다. 눈덩이 속에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두더지는 눈덩이에 귀를 대고 듣다가 눈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두더지는 눈에 파묻혀, 몸의 일부만 쑥 튀어 나와 있던 다른 친구들과 하나하나 만나게 된다.

##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마성만화도서관	4컷 만화 그리기	지역주민	2023.1~2	도서관에 비치된 만화 그리기 종이에 4컷 만화 그리고 기념품 받기
전하작은도서관	전하 브루마블 등	지역주민 (50여명)	2023.1	전하 브루마블 게임, 도서 대출 시 미니수첩 나눔
화정작은도서관	새해 책 필사 행사	지역주민	2023.1	그림책 또는 책을 읽고 필사 인증하고 기념품 받기

## 2023년 남목도서관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홈페이지: 울산동구 통합도서관 <https://library.donggu.ulsan.kr/>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문의
강좌	<남목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초등 3~4학년	2023.1	즐거운 독서경험을 통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겨울 독서교실 운영	☎ 052) 209-4580
강좌	<꽃바위작은도서관> 신나는 영어동화 특강	초등 1~2학년	2023.1~2	영어동화책을 읽고 동요 부르기, 역할극 해보기	☎ 052) 209-4337
강좌	<꽃바위작은도서관> 나는야 독서왕! 특강	초등 3~4학년	2023.1~2	책을 읽고 독서감상 활동 및 명문장 책갈피 만들기	☎ 052) 209-3936
강좌	<전하작은도서관> 환경특강 '즐거운 하브루타'	초등 1~3학년	2023.1	환경관련 그림책 읽고 나만의 환경규칙 만들기	☎ 052) 209-3950
강좌	<화정작은도서관> 새해 옷놀이 판 꾸미기	6~초등	2023.1	실날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옷놀이 판 꾸미기	☎ 052) 209-3950
강좌	<화정작은도서관> 신화와 역사로 배우는 인문학	초등 4~6학년	2023.1~4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역사를 통해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 키우기	☎ 052) 209-3950
강좌	<화정작은도서관> 초등종이접기 자격증반	초등	2023.1~4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배우기	

2022-2023 절기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아래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 상		일 정	준비물
생후 6개월~만 13세 (2009.1.1.~2022.8.31.)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2022.9.21.(수) ~ 2023.4.30.(일)	아기수첩, 보호자 신분증
	· 1회 접종 대상자	2022.10.5.(수) ~ 2023.4.30.(일)	
임신부		2022.10.5.(수) ~ 2023.4.30.(일)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등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7.12.31.이전 출생자)	· 만 75세 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 ~ 2022.12.31.(토)	신분증
	· 만 70~74세(1948.1.1.~ 1952.12.31.출생자)	2022.10.17.(월) ~ 2022.12.31.(토)	
	· 만 65~69세(1953.1.1. ~ 1957.12.31.출생자)	2022.10.20.(목) ~ 2022.12.31.(토)	
지자체 대상자	· 만 19~64세(1958.1.1.~2003.12.31.출생자) 장애인, (의료)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 만 14~18세 청소년 (2004.1.1.~2008.12.31.출생자)	2022.10.17.(월) ~ 2023.02.28.(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소년증 등 증빙서류

## ▶ 동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병의원 63개소

동	의료기관명	주소	어린이 참여	임신부 참여	어르신 참여	지자체 참여	동	의료기관명	주소	어린이 참여	임신부 참여	어르신 참여	지자체 참여
방 어 별	그린메디의원	동구 화문로 75, 2층	○	×	○	×	전 하 1 · 2 동	로즈메디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47	○	○	○	×
	김광국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82, 2층	×	×	○	○		박가정의원	동구 진성4길 57	×	×	○	×
	대한의원	동구 월봉6길 40	○	×	○	○		심록수요양병원	동구 진성8길 94, 4~8층	×	×	○	○
	박정운의원	동구 꽃바위로 311	○	○	○	○		상쾌한연합이비인후과의원	동구 진성14길 118	○	○	○	×
	방어진마린요양병원	동구 중진길 60	×	×	○	×		세화연합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25	×	×	○	×
	방어진의원	동구 동진로 6	×	×	○	○		손석호내과의원	동구 진성14길 128, 3층	○	○	○	○
	시민의원	동구 문재7길 5, 2층	○	○	○	○		안신경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99	×	×	○	×
	우리연합의원	동구 꽃바위로 350	×	×	○	×		우리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47, 2층	○	○	○	○
	바른윤의원	동구 문재6길 4	○	×	○	×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대학병로 25	○	×	×	×
	이창우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05	×	×	○	×		이음하비노기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87	×	×	○	×
일 산 별	제일의원	동구 문현로 40-1	×	×	○	×	이재담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구 진성14길 90, 2층	×	×	○	×	
	동울신영상의학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3, 9층	×	×	○	×	정병오내과의원	동구 진성14길 118, 201호	○	×	○	○	
	365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45 5층	○	○	○	○	정태영이비인후과의원	동구 전하로 2	×	×	○	×	
	신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1	○	○	○	○	주홍섭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진성14길 90	○	○	○	○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1, 401호	○	×	○	×	황기호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69	×	×	○	×	
	울산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D동 3층	○	○	○	○	김중수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18	×	×	○	×	
	의료법인 정흥의료재단 효림요양병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93-1	×	×	○	×	노정석산부인과의원	동구 명덕6길 11, 2층	○	×	○	×	
	화 전 별	강남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7	○	×	○	○	늘푸른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0	○	○	○	×
		동신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대학길 75	○	×	○	×	미래아동병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62	×	×	○	○
		소창옥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월봉8길 54	○	○	○	○	본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3, 2층	×	×	○	×
송병수의원		동구 대학길 35	×	×	○	×	윤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0	○	×	○	×	
아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 3층	○	×	○	×	임태균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5	○	○	○	×	
신통의원		동구 대학길 130, 4층	○	×	○	×	진화신경외과의원	동구 명덕6길 14	○	○	○	○	
연세내과의원		동구 대학길 74	○	×	○	×	한솔연합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	×	○	○	
우리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대학길 40, 2층	○	×	○	×	현대신경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27-1	○	○	○	×	
참사랑의원		동구 대학길 65, 2층	○	×	○	×	현대편한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37	×	×	○	×	
최형경내과의원		동구 대학길 71, 2층	○	×	○	○	화목한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1	○	○	○	○	
전 하 1·2 동	회정현대의원	동구 월봉로 14	×	×	○	×	박성면내과의원	동구 남목17길 4, 2층	○	○	○	×	
	한솔정형외과의원	동구 대학길 77	×	×	○	○	양지의원	동구 동해안로 49	○	×	○	○	
	감마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85, 602호	×	×	○	×	동부의원	동구 안산로 50	○	×	○	×	
동 부 3 동	강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99	×	×	○	×	현대가정의원	동구 동해안로 43, 1층	○	×	○	×	
	김용기내과의원	동구 전하로 2	×	×	○	×							

※ 동구보건소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동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09-4068

### ●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

동구청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피해발생시 보험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장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주민 및 등록외국인
- **보상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최대 2천만원 보상
- **문의** : 동구청 안전총괄과 052)209-3673



###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91%)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 **가입방법** : 6개 보험사업자에 직접 가입문의 및 계약체결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지원내용** : 총 보험료의 최대 91% 지원
- **문의** : 동구청 안전총괄과 052)209-3688



### ● 동구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을 안내

감면대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에 따른 수급자</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li> <li>△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ul>	100분의 5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0분의 30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100분의 20
수영회원 중 가입기 여성	100분의 10

### ● 적십자 회비 납부에 참여해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적십자회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경남은행 530-07-0115967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건강한 정치를 위한 정치후원금, 온라인으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http://www.give.go.kr) 는  
온라인으로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이용 장점

편리한 정치후원금센터

- 모금계좌를 알지 못해도 기부 가능
- 기부처(선관위, 후원회)에 인적사항 전달 용이
-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 문의 : 울산광역시동구 선거관리위원회 052)233-7787

#### 기부방법

온라인으로 정치자금 기부하기

- 0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http://www.give.go.kr)) 접속
- 02 기탁금-후원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 클릭
- 03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본인인증

#### 04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 휴대폰결제
- 무통장 입금/실시간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모인트 사용 및 모인트 + 지역 신용카드 결제)

모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삼성, 국민, 농협, 신한, 비씨, 하나, 롯데, 롯데  
※ 신한카드 및 롯데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 가능

**울산동구종합  
사회복지관  
소식**

● **건강관찰 지원사업 후원자 모집**

· **내 용** : 지역사회 내 홀몸어르신(독거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두유 후원자 모집

- **대 상** : 정기적 두유 후원자 모집 및 후원금 모집
-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이용자 발굴**

- **내 용** : 방문안전 및 전화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문화여가 및 체험활동), 생활교육(영양,건강,인지활동프로그램 등),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원 연계) 등
- **대 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장 소** : 어르신 자택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6090

● **위기가정 사각지대 발굴**

- **내 용** : 정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 중점 발굴
- **대 상** : 동구 지역 내 위기가정
-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지역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7

● **플러스원 나눔 기획 사업 참여자 모집**

- **내 용** : 반찬, 김치, 식료품을 직접 만들거나 준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
- **대 상** : 지역 주민 100여명 (개인 및 단체)
- **장 소** : 참여주민 가정에서 준비해서 이웃 가정에 전달
- **혜 택** : 밀폐형 용기 제공, 자원봉사시간 인증, 기부금영수증 발급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7

**울산동구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식**

● **가족상담사업**

· **내 용**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임신출산 갈등상담, 가족집단상담

- **대 상** : 동구지역 거주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 **장 소** : 울산동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문 의** : 052)232-3351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내 용**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

· **대 상** : 한국어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부모교육 /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자녀생활 / 7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장 소** : 각 가정
- **문 의** : 052)995-3359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내 용** :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경제적 문제, 취업, 자녀문제, 가족갈등, 주거, 법률 등)에 대하여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대 상** : 동구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 **장 소** : 울산동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문 의** : 052)232-3357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안내**

- **내 용** : 안전한 돌봄, 문화·놀이 프로그램 제공 및 생활지도 등 또래자녀+부모 모임에 관심있는 가정
- **대 상** : 초등학교생, 또래자녀+부모 모임에 관심있는 가정
- **장 소** : 울산 동구 남목5길 16 (서부경로당 2층, 남목초 도보 5분 거리)
- **문 의** : 052)232-3356

**울산화정종합  
사회복지관  
소식**

● **꽃바위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 모집**

· **내 용** :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생 중 심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가능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7세이상~12세초등학교생(소득무관) 1순위 : 맞벌이 가정 / 2순위 : 다자녀 가정 3순위 : 초등학교 저학년
- **모집인원** : 정기돌봄 15명 / 일시·긴급돌봄 3명
- **이용시간** : 월~금(학기 중 10시~19시, 방학 중 09시~18시)
- **장 소** : 울산 동구 문현 3길 6(방어동, 꽃바위문화관 1층)
- **문 의** : 꽃바위 다함께돌봄센터 052)235-3139

**동구 가정·  
성폭력 통합  
상담소 이용  
안내**

· **내 용**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상담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 **상담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혼상담 등

- **문 의** :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052) 252-6770, 252-6777

## “우편 구독신청 받습니다”

원하는 독자에게 맞춤형 배부를 위해, 희망자에게 대왕암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appynews@korea.kr](mailto:happynews@korea.kr)로 소식지를 받을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세요.

신청 메일에 <소식지 구독을 위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꼭 기재해 주세요.

전화신청도 받습니다. 문의 동구청 기획예산실 홍보계 052)209-3048

## 독자 이벤트

옛 남목작은도서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남목   도서관은 동구 최초의 만화도서관입니다. 조선시대 남목에는 군사용 말을 관리하는 감목관이 파견되었고 방어진까지   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목   은 약 5km가량 남아, 옛날 국토수호에 큰 기여를 했던 동구지역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주소와 성명을 꼭 기재해주세요.

- **보낼 곳**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3층 기획예산실 홍보계 대왕암소식지 담당자 앞(우편번호 44021)
- **이메일** [happynews@korea.kr](mailto:happynews@korea.kr)
- **문의** 울산 동구청 홍보계 052)209-3048
- **2022년 가을호 독자이벤트 정답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강미주 김미숙 김민호 김혜림 류순기 문채진 박경민 박병주 박은미 박은정 박현학 박혜민 서수연 이선락 이임순 장희주 조영대최혜자 한보영 황미영

##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상자** 2022. 1. 1.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주택 제외)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 **신청기간** 2023년 1월 31일 까지
- **감면세목**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내용**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비율만큼 감면  
※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
- **감면한도** 최대 50%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내)
- **감면제외** 가족간 임대차,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
- **문의** 동구청 세무1과 052) 209-3270

##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



###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휴무시간: 12:00 ~ 13:00)

📍 위치  
울산 동구 영제로 19



☎ 문의  
대동전화 052) 209-4970  
일자리지원센터 052) 209-6876-7  
포선영회합센터 052) 209-6900  
동구여성새로움센터 052) 209-6960-6

일자리지원센터, 울산포선영 회합센터, 동구여성새로움화기센터  
협업 모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일자리지원 one stop 서비스 제공





사진 이쌍식 명예사진기자

## 울산동구의 해는 어디서든 떠오른다

2023년 '새해'라는 단어는  
묵은 근심을 밀어내고 새 희망을 채워준다.

대왕암, 일산해수욕장, 울산대교 전망대,  
방어진 꽃바위, 주전해변, 동축사 관일대  
오랫동안 사랑받던 동구의 일출명소에  
요즘엔 슬도 구멍바위가 더 해졌다.

잘 찾아봐야 보이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작지만 큰 세상을 다 담고 있는  
슬도 구멍바위에도 새로운 해는 떠오른다.



### 2023 대왕암 해맞이 행사 안내

- 일시 : 2023년 1월 1일 오전 6시30분~
- 장소 : 대왕암공원 해맞이광장 일대
- 내용 : 풍물 길놀이, 축하공연, 소원엽서쓰기 등
- 주최 : 동울산청년회의소